

# ‘안전경영’은 안전 선진국을 향한 필수 조건

이영순 매경안전환경연구원장

**이제는 넓은 시각의 안전관리를 펼쳐야 할 때  
정부가 강력한 법 집행의지 가져야 산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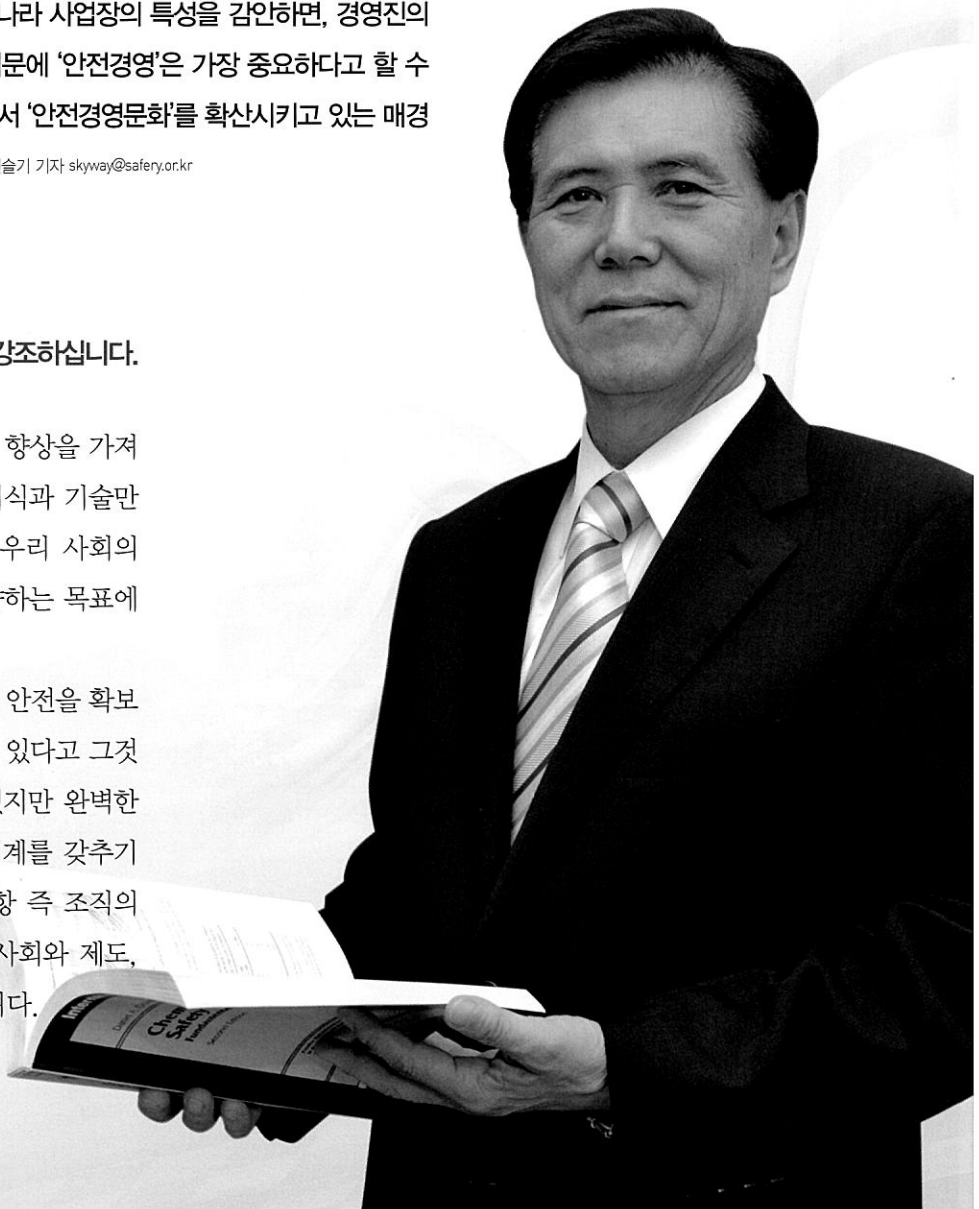
지난 18일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20회 안전경영대상’을 개최해 ‘안전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온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등의 업적을 치하했다. 안전경영, 즉 경영진의 확고한 안전의식은 우수한 안전관리 기법 실행,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 안전보건 관련법의 철저한 준수 등과 함께 안전사업장을 만드는 필수조건이다. 특히 상명하복의 문화가 짙은 우리나라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경영진의 안전 신념에 따라 안전관리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안전경영’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안전경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의 이영순 원장을 만났다. 취재 연설기 기자 skyway@safety.or.kr

원장님께서 평소 넓은 시각의 안전관리를 많이 강조하십니다.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분야와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안전관리의 향상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관리는 관련 지식과 기술만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와 연계를 도모할 때 지향하는 목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할 때 안전 관련 지식과 기술만 갖추고 있다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선까지야 가능하겠지만 완벽한 안전관리는 불가능합니다. 무결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 즉 조직의 특성, 생산관리, 재화의 흐름, 인간의 특성, 사회와 제도, 문화 등에 이르는 폭넓은 지식이 반영돼야 합니다.



## 산업재해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에는 산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국에서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엄격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진국에선 사업주는 물론 구성원 모두가 관련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지식 및 기술을 충분히 익힌 후 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안전 관련 부서나 전문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이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니 안전관리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해도, 이를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안전 관련 지식이나 기술도 익히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럼 산재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법규 등에 의한 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정부가 강력한 집행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정부의 집행의지란 안전 관련 부처만의 의지가 아닌 범정부적인 차원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안전 관련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보다 작업장 및 사회의 분위기, 문화적인 요소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안전 관련 부처만이 아닌 범사회적인 역량이 집중돼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산재 감소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은 물론 사업장의 경영진과 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학계 전문가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



니다. 사업장에선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업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안전전문가들은 안전한 작업표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 새해를 맞아 현장의 안전인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흑룡의 해 임진년이 지나고 희망찬 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말로 안전의 전도사이자 최고의 애사자, 애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을 몰라줘도 또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은 숨길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우리 사회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올 한해 역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뭉친 고귀한 인간존중 정신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몸담고 계신 사업장은 무재해를 이루고, 가정에는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